

“사업은 시계추, 흥하거나 망하거나... 개인보다 조직의 힘”

ESC 상생포럼 공동기획

정현식 프랜차이즈협 수석부회장
성과보상으로 주인의식 갖게해야
해외진출, 현지회사 인수 고려할 만
“상장은 우군 확보를 위한 길”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 /해마로푸드서비스

“사업은 시계추와 같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 부회장이자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은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에서 “패종시계의 추가 가운데 멈춰있을 수 없고 왔다 갔다 하듯이 사업도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운영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개인보다 조직의 힘이 더 크다는 믿음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수제버거·치킨 브랜드인 맘스터치로 잘 알려진 회사다. 정 회장은 45살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첫째 40억원 정도였던 매출을 현재 2000억원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사업은 시계추와 같다는 말은 정 회장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사업 실패 경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26살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3년을 일한 후 29살에 사장을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직장을 그만둔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풀쩍 망했다”고 회상하는 그는 사업에 실패한 뒤 다시 회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회사를 나왔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또 다시 사업을 접고 회사에 들어간다.
총무과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다가 경력을 쌓아 2004년 창업한 그는 순조롭게 경

영해 5년 후인 2009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꾸준히 성장해 2016년 상장했다. 정 회장은 “창업하고 5년의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한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장을 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의 약 4000개 업체 중 2개사만 상장했기 때문이다. 0.05%의 상장률로 일본, 미국, 대만 등의 나라가 30%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정 회장은 “상장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프랜차이즈는 유행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포함해 여러 제한을 뒤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 회장은 꾸준히 상장에 도전했고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그가 상장에 관심을 보인 것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상장은 우군 확보를 위한 길이었다”고 덧붙였다. 상장을 하면 수많은 주주들이 생겨 롯데리아, 맥도날드와 같은 강한 경쟁상대와 맞붙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군이 돼줄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

는 정 회장은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사업자금으로 5억원을 책정했다면 그 5배인 25억원을 가지고 시작해야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에 대한 경험 없이 계획을 하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고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 해야 할 시간에 돈 구하러 다니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자금 문제를 비롯해 조직, 인력,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을 위해 어떤 경력을 쌓을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임의 달인’으로 불리다는 정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명언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믿어라’를 인용하며 “조직의 힘은 개인의 힘보다 훨씬 크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가치 제공, 비전 제시, 가장 잘하는 분야 선정, 수익 구조 파악, 성과지표 관리를 성공 비결로 제시했다.
정 회장이 말하는 맘스터치의 비전은 가성비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 나타낸다.

정 회장은 “맘스터치의 싸이버거는 경쟁사의 치킨 패티보다 2배 크게 만들지만 가격은 그에 비해 2000~3000원 저렴한 3400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기업운영에 있어서 성과보상을 중요시한다.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하려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사업 초기 2억원을 벌었으니 2억원의 30%는 직원에게 보너스로 줘야겠다고 생각해 6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려와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줬다”고 말했다. 첫째에 5억원이 손해였다면 두 번째 해에는 3억원으로 줄어 2억원을 벌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직원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CEO들이 돈을 벌면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런 사장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사업의 해외진출은 성공하기 힘들다”면서도 “현지 회사를 인수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서용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2일 경기 부천에 있는 에이엔피를 방문해 전문관 대표(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홍종학 “근로시간 단축해야 과로사회 탈출”

(중기부 장관)
근로기준법 적용 후 첫 중소기업 방문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은 2일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80년대 후반 이후 쇠락하는 경제 추세를 전환하고,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경기 부천과 시흥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이 이날 방문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사 에이엔피와 알루미늄 주조사 대용산업은 종업원이 300명 이상 기업으로

이달부터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홍 장관은 올 연초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등을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 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청년고용장려금’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홍 장관이 방문한 두 기업 대표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이직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박길연 하림 신임사장 “2030년 세계 10위권 축산기업”

**지역사회·국가 발전 기여
‘상생경영 하림’ 의지 표명**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전문경영인으로 박길연(56) 신임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닭고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다.
하림은 2일 오전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박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 대표는 이날 “국내 닭고기 산업의 선도 기업인 하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는 영광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대표는 1985년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천하제일사료에 입사해 판매본부장과 ‘올품’의 영업본부장을 거쳐 기획



박길연 (주)하림 신임 사장이 2일 오전 11시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명 익산공장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림그룹

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한강씨엠 대표이사를 맡아 닭고기 계열화사업의 사육과 생산, 영업과 경영까지 전 부문을 두루 경험했다.
그는 농가 상생경영을 통해 연평균 소득 2억원 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

는 상생 하림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부터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익산공장을 증축, 리모델링 중이다. 새롭게 변신하는 익산공장은 국산 닭고기 품질경쟁력을 선도하며 수입산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완벽히 방어하는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우리 회사가 2030년 가금 식품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모두가 한 뜻으로 차근차근 밀고 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며 “하림의 끝없는 도전 정신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계무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달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롭게 하림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으로 박 대표를 선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케미칼, 백신부문 사업 분사 SK바이오사이언스로 ‘새 출발’

전문성 강화·경영 효율성 제고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일 공식 출범했다.
SK케미칼은 1일 기존 백신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인 ‘SK바이오사이언스’로 설립했다고 2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의 100% 자회사가 된다.
이번 분할로 SK케미칼은 친환경 소재 사업 및 합성의약품 사업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사업에서 각각 전문성 강화에 나서게 된다. 또 SK바

이오사이언스는 외부 투자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마련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신설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이사에는 안재용 SK케미칼 백신사업 부문장이 선임됐다.
안 대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혁신적 R&D 기술력과 최첨단 생산시설은 성공의 근간”이라며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백신전문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자체 개발 백신과 글로벌 기구들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백신, 세계적 생산 규모의 백신 공장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국내 유일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와 스카이셀플루4기는 출시 이후 3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40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를 돌파했고 WHOPQ(사전적격심사) 인증을 통한 국제 입찰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2월엔 글로벌 백신 리더인 사노피 파스퇴르에 최대 1억5500만불 규모로 독감백신 생산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대원제약 발달장애청소년 음악교육 후원금 전달

대원제약은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음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재단인 하트하트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대원제약의 사내 합창단인 ‘대원하모니’의 11회 정기연주회 기금 및 모금액으로 마련됐으며, 기부금 전달식은 2일 오전 대원제약 본사 10층에서 대원제약 김재호 사장과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원제약의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2일 오전 대원하모니 나눔콘서트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이사장(왼쪽)과 대원제약 김재호 사장. /대원제약